

## 최근(24.8~9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 최근 동향

◆ 8월 실물경기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는 생산·소비·투자 증가세가 약화되며 둔화흐름이 지속

(실물경기) 공업생산은 제조업 및 광업 증가세 둔화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소매판매는 자동차·가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및 SOC 투자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약화

수출은 자동차, 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

(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물가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지속

(금융시장) M2 증가율은 전월 수준이고,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하락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에 비해 하락(미달러화 대비 강세)하였고, 외환보유액은 증가

## 향후 전망

◆ 중국경제는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정부의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수출 등을 중심으로 올해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IT 업황 호조세 지속·소비 개선 등이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주요국 경기둔화·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
- 인민은행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완화적 통화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

## 가. 실물경제

## 1. 실물경기

◆ 8월 실물경기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는 생산·소비·투자 증가세가 약화되며 둔화흐름이 지속

- **공업생산**(7월 5.1% → 8월 4.5%)은 제조업 및 광업 증가세 둔화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소매 판매**(2.7% → 2.1%)는 자동차·가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3.6% → 3.4%)는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및 SOC 투자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약화**

- **수출**(7.0% → 8.7%)은 자동차, 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7.2% → 0.5%)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

## 2024.8월 주요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1.8월	22.8월	23.7월	8월	24.6월	7월	8월
<b>생 산</b>	5.3	4.2	3.7	4.5	5.3	5.1	4.5
(광업)	2.5	5.3	1.3	2.3	4.4	4.6	3.7
(제조업)	5.5	3.1	3.9	5.4	5.5	5.3	4.3
(전기가스수도)	6.3	13.6	4.1	0.2	4.8	4.0	6.8
<b>투 자<sup>1)</sup></b>	8.9	5.8	3.4	3.2	3.9	3.6	3.4
(SOC)	2.9	8.3	6.8	6.4	5.4	4.9	4.4
(제조업)	15.7	10.0	5.7	5.9	9.5	9.3	9.1
(부동산개발)	10.9	-7.4	-8.5	-8.8	-10.1	-10.2	-10.2
<b>소매판매</b>	2.5	5.4	2.5	4.6	2.0	2.7	2.1
<b>수 출</b>	25.1	5.9	-14.3	-8.6	8.6	7.0	8.7
<b>수 입</b>	32.4	-0.6	-12.1	-7.2	-2.4	7.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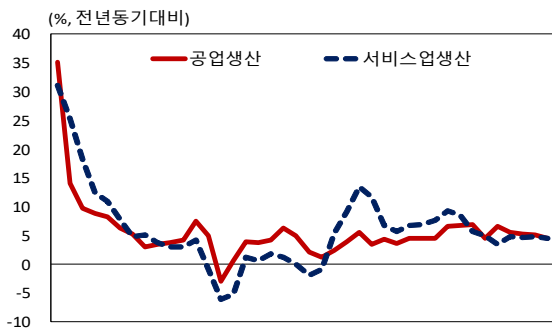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상무부, 해관총서

□ **(생산) 8월 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은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7월 5.1% → 8월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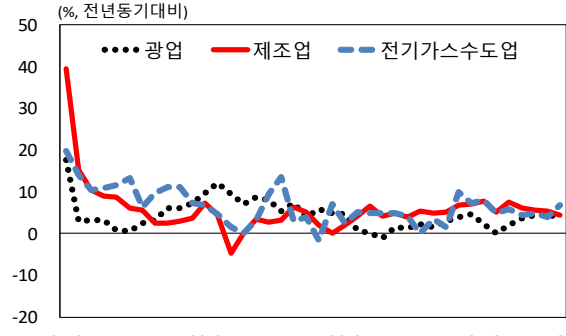
-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업(7월 4.0% → 8월 6.8%)이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5.3% → 4.3%)과 광업(4.6% → 3.7%)은 증가세가 둔화
  - 제조업의 경우 화학제품, 금속·비금속 가공, 컴퓨터·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낮아짐
- **서비스업생산**(4.8% → 4.6%)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

**공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업종별 공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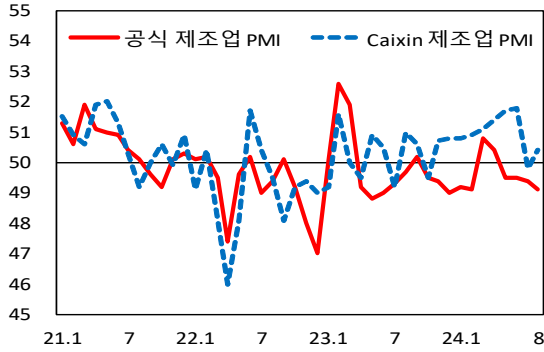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국

□ **(PMI) 8월 제조업 PMI**는 **49.1**로 전월(49.4)에 비해 0.3p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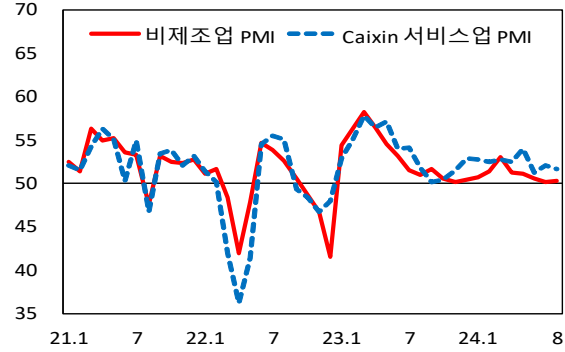
- 부문별로 보면 **생산**(7월 50.1 → 8월 49.8)이 전월보다 0.3p **하락**하며 6개월만에 기준치(50)를 하회하였고, **원자재재고**(47.8 → 47.6), **고용**(48.3 → 48.1), **신규주문**(49.3 → 48.9)이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며, **공급자배송시간**(49.3 → 49.6)은 **상승**
- 규모별로는 **대기업**(50.5 → 50.4), **중기업**(49.4 → 48.7)과 **소기업**(46.7 → 46.4)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
-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전월**(50.2)**보다 소폭 상승**
  - **서비스업**(7월 50.0 → 8월 50.2)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 금융·보험 등은 부진하였으나 철도·항공운송, 정보·통신, 문화·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 **건설업**(51.2 → 50.6)은 부동산경기 부진이 여전한 데다 고온·우천 등 기상 여건 악화의 영향이 더해지며 전월에 비해 **둔화**
- **종합 PMI**(50.1)는 비제조업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더 크게 내리면서 **전월**(50.2)보다 **0.1p 낮아짐**

### 제조업 PMI



자료 : 중국물류구매협회, 국가통계국, Caixin

### 비제조업 PMI



□ **(소매판매) 8월 소매 판매**(명목기준, 전년동기대비)는 2.1% 증가하며 전월(2.7%)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전기대비 증가율: (24.4월) -0.1% → (5월) 0.5% → (6월) 0.0% → (7월) 0.3% → **(8월) 0.0%**

(전년동기대비, %)	23.6월	7월	8월	24.6월	7월	8월
소매판매	3.1	2.5	4.6	2.0	2.7	<b>2.1</b>
(외식업)	16.1	15.8	12.4	5.4	3.0	<b>3.3</b>
(상 품)	1.7	1.0	3.7	1.5	2.7	<b>1.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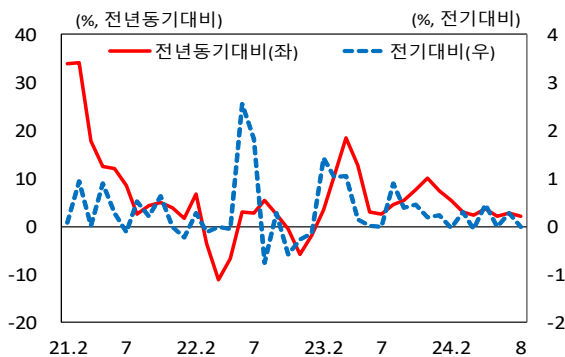
○ **외식업 판매**(7월 3.0% → 8월 3.3%)가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상품 판매**(2.7% → 1.9%)는 휴대폰 증가세 확대, 가전 상승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가구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

\* 주요 상품판매 증가율(7월 → 8월, 전년동월대비):

(휴대폰) 12.7% → 14.8%, (식품) 9.9% → 10.1%, (의약품) 5.8% → 4.3%,  
(자동차) -4.9% → -7.3%, (가전제품) -2.4% → 3.4%, (가구) -1.1% → -3.7%

○ **상품의 인터넷판매**(누계 기준)도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8.7% → 8.1%)

### 소매판매액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 상품 및 외식업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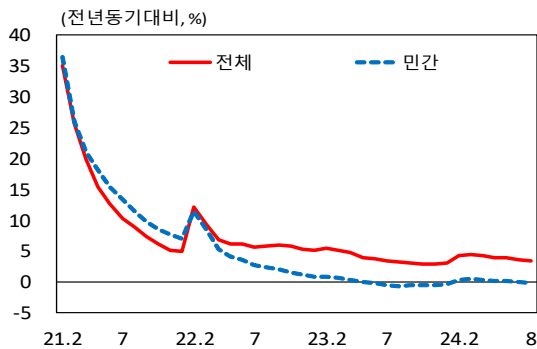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국

□ (고정자산투자) 8월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는 3.4% 늘어나 전월(3.6%)보다 증가세가 둔화

○ 부동산개발투자(7월 -10.2% → 8월 -10.2%)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투자(9.3% → 9.1%) 및 SOC투자(4.9% → 4.4%)도 증가세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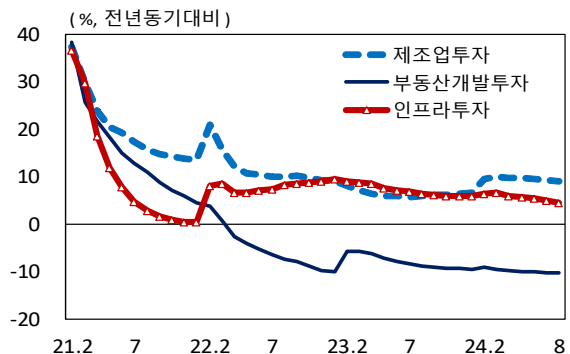
— 민간투자 증가율은 감소로 전환(0.0% → -0.2%)

고정자산투자<sup>1)</sup> 증가율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부문별 고정자산투자<sup>1)</sup> 증가율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 (수출입) 8월 수출은 자동차, 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수출) 반도체, 가전제품 등이 전월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자동차\*, 휴대폰 등의 증가세가 확대(7월 +7.0% → 8월 +8.7%)

* 자동차 수출실적	24.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대수(만대)	50.2	50.4	48.1	48.5	46.9	51.1
(전년동기대비, %)	(37.9)	(34.0)	(23.9)	(26.9)	(19.6)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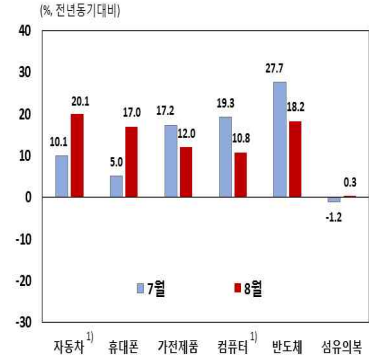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WIND

○ (수입) 농산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줄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비교적 큰 폭 하락\*(7월 +7.2% → 8월 +0.5%)

\* 다만 반도체의 경우 증가율이 전월보다는 낮아졌으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미국의 對中 규제(해외직접생산품규칙 확대 적용, 중국으로의 HBM 수출 규제 등)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들의 반도체 비축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中信証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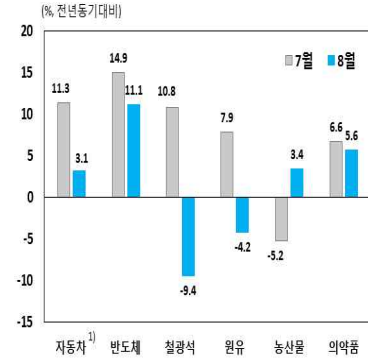
○ (무역수지) 910억달러 흑자로 7월(847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8월 누적 6,085억달러)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주 : 1) 관련 부품 포함  
자료 : 해관총서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



주 : 1) 관련 부품 포함  
자료 : 해관총서

### 수출입 증가율<sup>1)</sup> 및 무역수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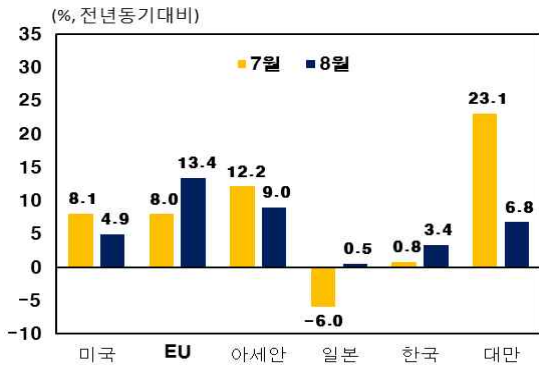
주 : 1) 2월은 1~2월 누계 기준  
자료 : 해관총서

○ (주요국별 수출입) 수출은 EU\*, 한국이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아세안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대만은 증가율이 큰 폭 둔화

\* 8월 對EU 수출이 늘어난 것은 ① 전년의 낮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②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9월말 회원국 투표 예정)에 대비한 사전수출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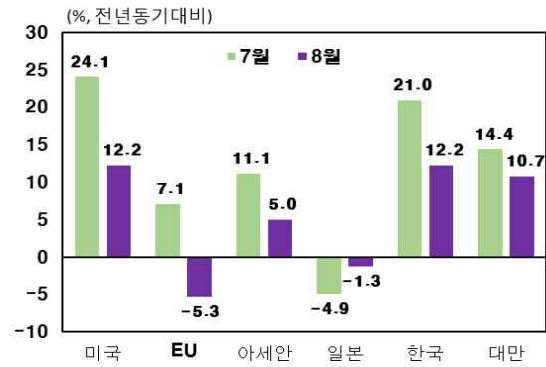
— 수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

###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해관총서

### 지역별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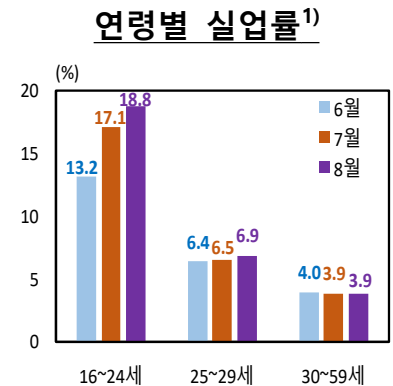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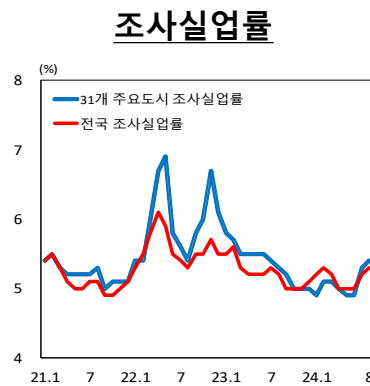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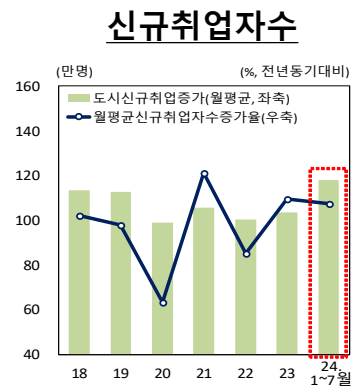


자료 : 해관총서

## 2. 고용사정

◆ **고용사정**은 청년층 실업률을 중심으로 조사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지속

- **(신규취업자)** 1~7월 평균 신규취업자수는 **118.0만명**(전년동기대비 2.5%)으로 작년 같은 기간(115.1만명)에 비해 2.9만명 증가
- **(실업률)** 8월 전국 조사실업률(7월 5.2% → 8월 5.3%) 및 31개 도시실업률(5.3% → 5.4%)은 모두 전월보다 **상승**
- 연령층별 실업률(학생 제외)을 살펴보면 **30~59세**(3.9% → 3.9%)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6~24세**(17.1% → 18.8%) 및 **25~29세**(6.5% → 6.9%) 실업률은 전월대비 **상승**



## 3. 물가 및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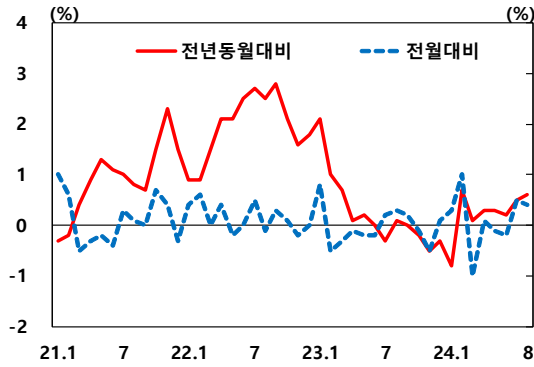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물가**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신규주택)은 **하락세**가 지속

- **(물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0.6%**로 전월(0.5%)대비 **소폭 상승**
  - \* 반면 8월 Core-CPI 상승률은 0.3%로 전월(0.4%)보다 낮아짐
- 품목별로 보면 비식품가격(7월 0.7% → 8월 0.2%)은 오름세가 축소된 반면, 식품가격(0.0% → 2.8%)은 돼지고기(20.4% → 16.1%)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신선채소(3.3% → 21.8%) 상승폭 확대, 신선과일(-4.2% → 4.1%) 상승 전환 등에 힘입어 상승

○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1.8%**로 전월(-0.8%) 대비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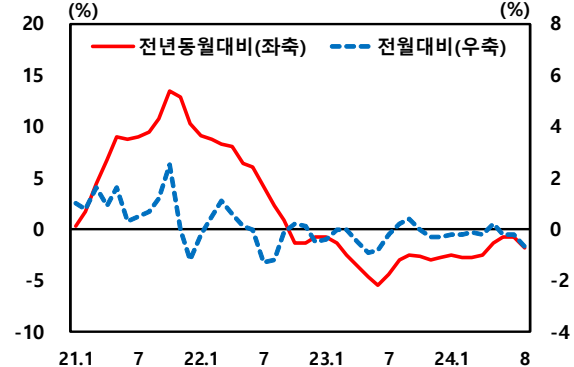
— 생산재(7월 -0.7% → 8월 -2.0%) 및 생활재(-1.0% → -1.1%) 가격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국가통계국

**생산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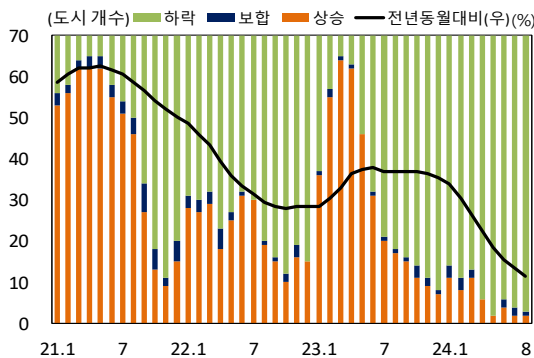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국

□ **(주택가격) 8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상품주택가격**을 보면 가격상승 도시수(7월 2개 → 8월 2개)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가격하락 도시수(66개 → 67개)는 늘어나는 등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

○ 1선도시(-0.5% → -0.3%), 2선도시(-0.6% → -0.7%), 3선도시(-0.6% → -0.7%) 모두 하락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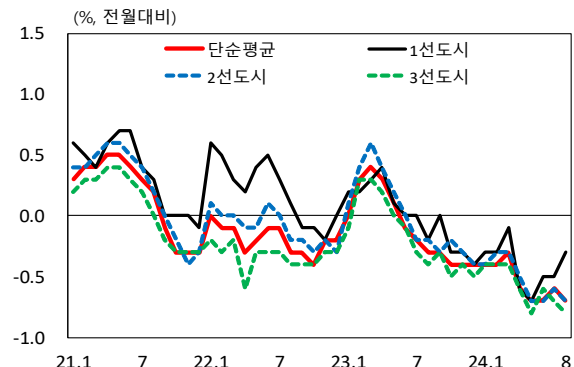
○ 기준주택가격(전월대비)도 1선도시(-0.5% → -0.9%), 2선도시(-0.8% → -1.0%), 3선도시(-0.8% → -0.9%) 모두 하락세가 지속

**주택가격 변동(전월대비) 도시수**



주 : 신규상품주택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도시규모별 주택가격 상승률**



주 : 신규상품주택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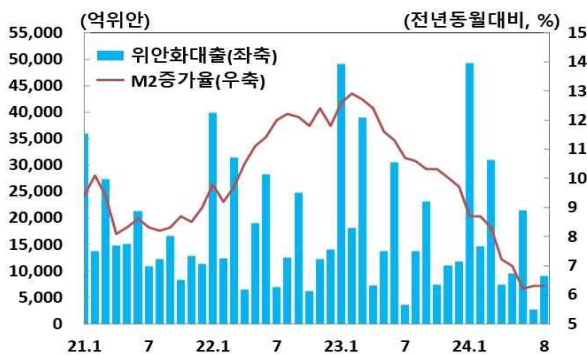


## 나. 금융시장

- ◆ 8월 M2 증가율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고, **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부각 등으로 **하락**
- ◆ 8월 **위안화 환율**(미 달러화대비)은 전월말대비 **하락**하였고, **외환보유액**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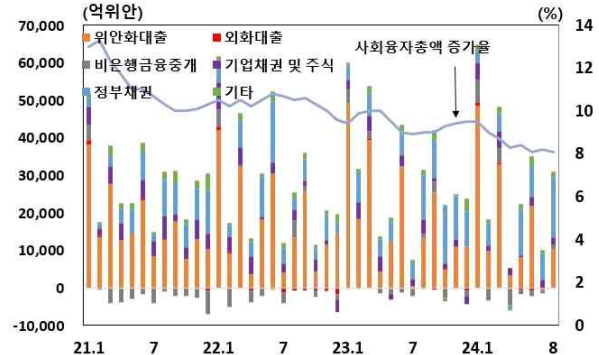
- (통화량) 8월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6.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고, **사회용자총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 8.1%)은 전월(8.2%)보다 **소폭 하락**

M2 증가율 및 신규 위안화대출



자료 : 인민은행

사회용자총액 증가율 및 부문별 증감



주 : 사회용자총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우측), 부문별 증감은 전월대비(좌측)

- **사회용자총액**은 전월대비 **3.0조위안** 증가하였는데, 부문별로는 **정부채권 발행액**(1.6조위안), **위안화대출**(1.0조위안), **주식·채권발행액**(0.2조위안), **비은행금융증개액**(0.1조위안)이 **모두 증가**

사회용자총액 증감 추이(전월대비, 억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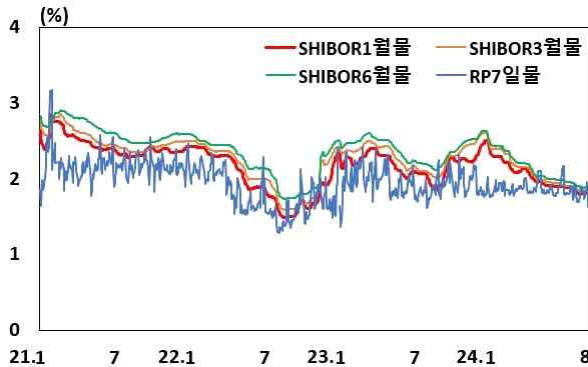
	24.4월	5월	6월	7월	8월	
사회용자총액	-720	20,623	32,985	7,724	<b>30,311</b>	<b>(398.6)</b>
■ 위안화대출	3,349	8,197	21,927	-808	<b>10,411</b>	<b>(248.9)</b>
■ 비은행금융증개	-4,257	-1,116	-1,300	-756	<b>1,160</b>	<b>(17.7)</b>
■ 주식·채권	1,893	396	2,254	2,267	<b>1,835</b>	<b>(43.9)</b>
■ 정부채권	-937	12,266	8,476	6,881	<b>16,177</b>	<b>(75.4)</b>

주 : ( )내는 사회용자총액 잔액(조위안)

- (금리) 8월중 단기금리는 물가 등 경제지표 부진,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등으로 하락한 반면 장기금리는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9월 들어서는 단기금리는 반등한 가운데 장기금리는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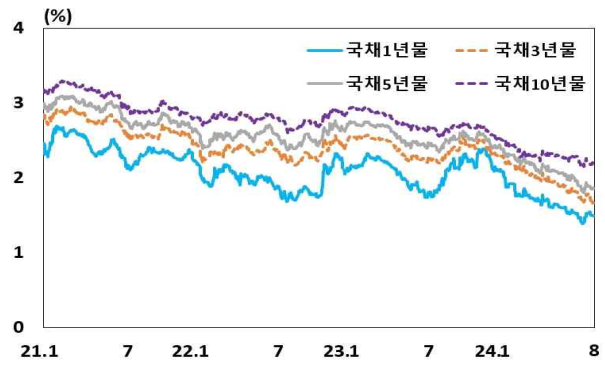
(기말 기준)	24.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23일
■ RP 7일물(%) :	1.77	2.01	2.11	1.87	2.45	1.90	1.70	1.89
■ SHIBOR 1월물(%) :	2.10	2.14	1.96	1.91	1.90	1.84	1.82	1.84
■ 국채 3년물(%) :	2.10	2.03	1.99	1.93	1.80	1.71	1.67	1.50
■ 국채 10년물(%) :	2.35	2.30	2.31	2.31	2.22	2.15	2.19	2.06

단기 시장금리



자료 : CEIC

장기 시장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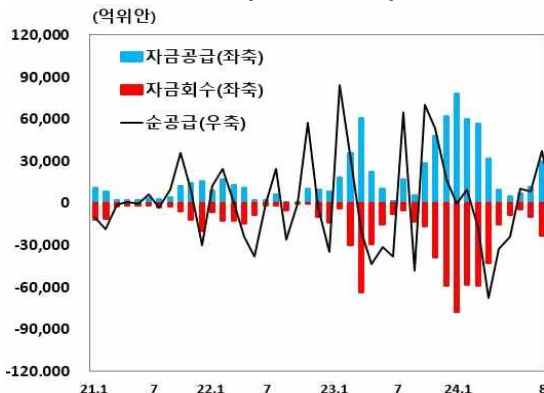


자료 : CEIC

- 인민은행은 8월중 역RP를 통해 41,773억위안을, MLF는 3,000억위안을 각각 공급(역RP의 경우 391억위안 순공급, MLF는 1,010억위안 순회수)
  - 8월 역RP의 경우 만기도래액(41,382억위안)을 소폭 상회한 자금(41,773억위안)을 금융시장에 공급하였으나, MLF는 만기도래액(4,010억위안)을 하회한 자금(3,000억위안)을 공급
  - 9월(9.1~23일) 들어서도 적절한 시중 유동성 관리를 위해 역RP를 통해 만기도래액(26,352억위안)을 상회한 자금(29,716억위안)을 금융시장에 공급(순공급 3,364억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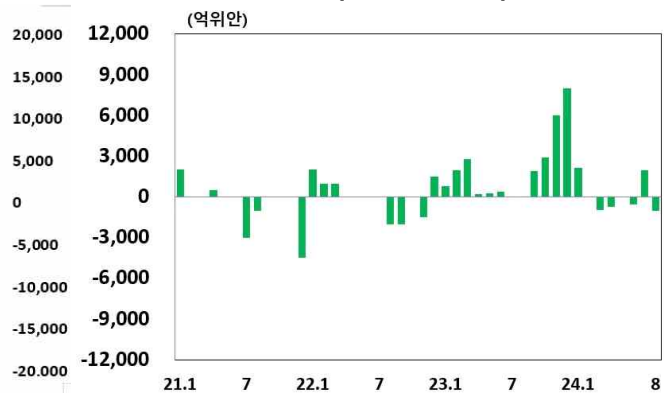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RP 공급)



자료 : WIND

(MLF 순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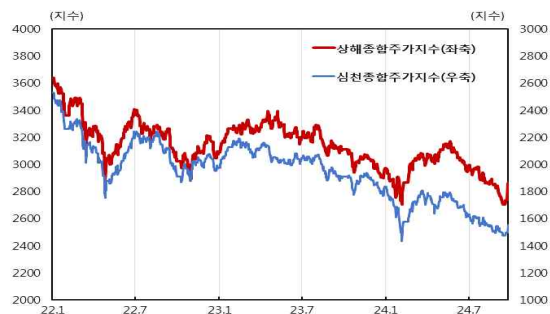
자료 : WIND

□ (주가) 8월 주가는 월초 들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하였으며, 이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부진(8.15일 발표)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하락폭이 확대**(7월말 대비 8월말 변동: 상해지수 -3.3%, 심천지수 -4.1%)

\* 지난 8.5일 美 고용부진에 대한 우려, 엔케리 트레이드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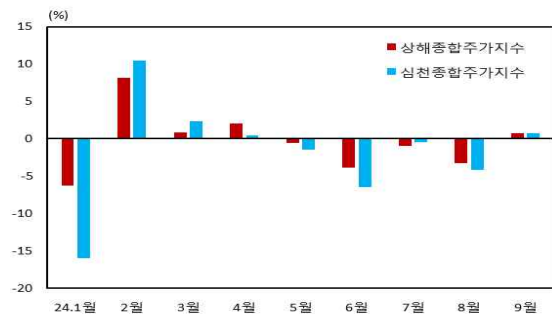
○ 9월 들어서도 중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美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9.18일 현지시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예고(9.24일) 등에 힘입어 **반등**

**상해·심천 종합주가지수**



자료 : WIND

**금년중 주가 변동률<sup>1)</sup>**



주 : 1) 전월말대비, 2) 9월은 9.24일 기준  
자료 :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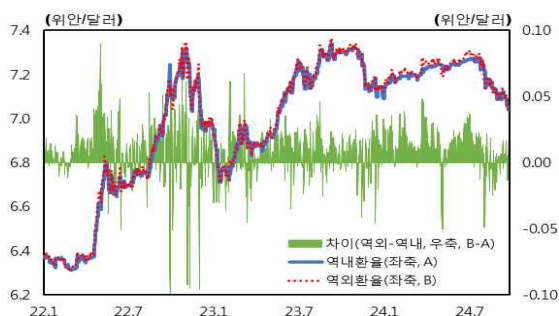
□ (환율) 8월 위안화 환율(미 달러화대비)은 **전월말대비 하락**(위안화 강제)하고 **외환보유액**은 증가

○ 8월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락**(위안화 강제, 7월말 7.2261위안 → 8월말 7.0881위안)

— 9월 들어서는 미·중 경제지표 추이 등에 영향을 받아 등락을 반복하다가, 美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미달러화 약세,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예고 등으로 **하락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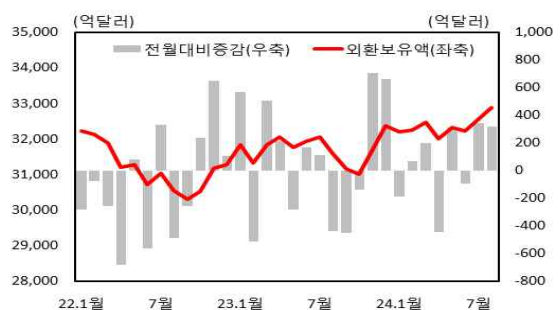
○ 8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318억달러 증가**한 **3조 2,882억달러**를 기록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



자료 : 인민은행, WIND

**외환보유액**



자료 : 인민은행, WIND

## 가. 실물경제

- **중국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고 내수부진 지속, 대외갈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시장은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
  - \* 8월 공업생산 예상 +4.7%(실제 +4.5%), 소매판매 예상 +2.5%(실제 +2.1%), 고정자산투자 예상 +3.5%(실제 +3.4%)
  - \*\* 미국, 캐나다 등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9.18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 사실을 밝힘(9.16일)에 따라 9.18일부터 미국 군수기업(9개社)의 중국내 재산 동결, 중국내 조직과 개인의 해당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
- **생산**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나 주요국 관세부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가 우려되며,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의 영향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中金公司, 德邦証券 등)
- **소비**는 중추절 및 중국정부의 소비진작책 강화, 국경절 연휴 소비 성수기 진입 등으로 **개선이 기대**되나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제한적\***일 가능성
  - \* 국가통계국 류아이화(刘爱华) 대변인은 8월 경제지표 관련 질의응답 중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에 제약이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신뢰와 의욕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9.14일)
-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 효과는 8월 높은 휴대폰 판매 지속, 가전 판매 증가 전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銀河証券 등)와 아직 정책효과가 불분명(中金公司 등)하다는 시각이 병존
  - \* 노후화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해 신규 투자와 소비를 유도
- 중국정부가 경기안정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유효수요의 부족 문제로 **하반기 경기회복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8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이구환신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정부도 관련 시행세칙 마련 및 설비투자 확대, 디지털 소비 진작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600여개의 설비 교체 프로젝트 선정 및 국채(1,500억 위안)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소비재 교체분야의 국채(1,500억 위안)도 8월초부터 지방정부에 전액 하달하였다고 발표(9.24일)

⇒ **중국경제**는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정부의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수출 등을 중심으로 **올해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IT 업황 호조세 지속, 소비 개선 등이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

## **나. 통화정책**

□ **인민은행**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완화적 **통화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

○ 판공성(潘功胜) 총재는 충분한 **장기유동성 공급**과 **물가목표 달성**,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50bp) 등을 **예고**\*(9.24일)하였으며, 다음 날 **9.25일**(수) 전격적으로 **MLF 금리**를 **0.3%p 인하**(2.3% → 2.0%)

\* <참고> 「인민은행 판공성 총재의 경기·증시 부양을 위한 기자회견 주요 내용 참조」

— 시장참가자들은 인민은행이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며, 역RP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도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인하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최근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쏠림현상에 따라 중장기 **채권금리**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공개시장**에서의 **국채매매**\* 거래를 수행할 전망

\* 인민은행은 8월중 공개시장에서 단기물을 매입하고 장기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실시

□ 아울러 인민은행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형 국영 부동산개발기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자금**을 적절히 **공급**하는 가운데, **주택 未인도** 등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재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전망(中金公司 등)

<참고>

## 인민은행 판공성(潘功胜) 총재 경기·증시 부양 관련 기자회견 주요 내용

□ 판총재는 9.24일 올해 3분기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증시·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해 투자심리 회복, 가계 소득 개선 효과를 고취하고자 유례없는 통화정책 변화를 예고

① **(정책금리 인하)** 7일물 RP 금리를 선두로 LPR, MLF 금리 등을 20~30bp 인하할 것을 예고하는 가운데 기준율도 조만간 50bp 인하(1조위안 규모의 시중유동성 공급 효과) 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추가로 25~50bp 인하할 것을 발표

② **(부동산 시장 부양책)**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를 50bp 인하\*하고 1, 2차 주택구입 선수금 비율을 15%로 통일

\* 대략 5,000만 가구, 1억5,000만명의 이자 부담액이 연평균 약 1,500억위안(약 한화 28조원) 감소됨에 따라 소비여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

— 또한 건설중인 주택 공급 보장을 위해 인민은행의 특별재대출 한도 지원 비율을 확대(60% → 100%)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기업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 16조\* 정책을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当前金融支持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工作的通知, 2022.11.). ① 부동산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지원, ② 건물완공인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③ 부실 부동산기업의 리스크 관리, ④ 주택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⑤ 부동산 대출집중도 등 금융관리정책 일부 조정, ⑥ 임대주택관련 금융지원 확대 등 6개 분야의 16개 조치

③ **(증시 부양책)** 적격 증권사·기금·보험사가 보유중인 유동성이 낮은 주식과 인민은행이 보유중인 유동성이 높은 국채 등을 스왑하는 방식으로 5,000억 위안 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

— 또한 상장기업, 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재대출 한도를 신설하여 자금을 지원

④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중장기 국채수익률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개시장에서 국채매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

— 또한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균형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일방향으로의 쏠림현상을 야기하는 투기세력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

<붙임>

### 주요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22 연간	2023 연간	2023			2024		2024		
			2/4	3/4	4/4	1/4	2/4	6	7	8
GDP성장률	3.0	5.2	6.3	4.9	5.2	5.3	4.7	-	-	-
조사실업률 <sup>1)</sup>	5.5	5.1	5.2	5.0	5.1	5.2	5.0	5.0	5.2	5.3
공업생산	3.6	4.6	4.5	4.2	6.0	6.1	5.9	5.3	5.1	4.5
서비스업생산	-0.1	8.1	6.8	6.9	8.5	5.5	4.3	4.7	4.8	4.6
소매판매	-0.2	7.2	11.4	4.2	8.4	4.7	2.7	2.0	2.7	2.1
고정투자 <sup>2)</sup>	5.1	3.0	3.8	3.1	3.0	4.5	3.9	3.9	3.6	3.4
C P I	2.0	0.2	0.1	-0.1	-0.3	0.0	0.3	0.2	0.5	0.6
P P I	4.1	-3.0	-4.5	-3.3	-2.8	-2.7	-1.6	-0.8	-0.8	-1.8
수 출	5.6	-4.7	-4.9	-9.9	-1.3	1.1	5.7	8.6	7.0	8.7
수 입	0.7	-5.5	-7.0	-8.5	0.9	1.6	2.5	-2.4	7.2	0.5
무역수지(억\$)	8,379	8,221	2,198	2,217	1,997	1,802	2,526	988	847	910
외환보유액(억\$)	31,277	32,380	31,930	31,151	32,380	32,457	32,224	32,224	32,564	32,882

주 : 1) 기말기준, 2) 누계기준

###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

구 분	2022 연간	2023 연간	2023			2024		2024		
			2/4	3/4	4/4	1/4	2/4	6	7	8
M2증가율 <sup>1)3)</sup>	11.8	9.7	11.3	10.3	9.7	8.3	6.2	6.2	6.3	6.3
위안화대출증가율 <sup>1)3)</sup>	11.1	11.0	11.7	11.3	11.0	9.6	8.3	8.3	8.3	8.1
사회융자총액증가액 <sup>2)</sup>	32.0	35.6	7.0	7.8	6.2	12.9	5.3	3.3	0.8	3.0
장기금리(국채10년) <sup>3)</sup>	2.85	2.57	2.65	2.68	2.57	2.30	2.22	2.22	2.17	2.19
단기금리(RP7일) <sup>3)</sup>	2.36	1.91	2.17	2.24	1.91	2.01	2.45	2.45	1.90	1.70
주가지수(상하이종합) <sup>3)</sup>	3,089	2,975	3,202	3,110	2,975	3,041	2,967	2,967	2,939	2,842
환율(미달러) <sup>3)</sup>	6.95	7.09	7.26	7.30	7.09	7.22	7.27	7.27	7.23	7.09
은행의 대고객 직간접 투자 유출입(억달러) <sup>4)</sup>	-1,889	-1,578	-176	-1,009	-201	-166	-507	-186	-255	-82

주 : 1) 잔액기준, 전년동기대비(%) 2) 조위안, 기간중 3) 기말기준 4) 기간중(+는 유입, -는 유출), 국가외환관리국 기준

### 중국 지방정부 부채<sup>1)</sup>

구 분	2022 연간	2023 연간	2023			2024		2024		
			2/4	3/4	4/4	1/4	2/4	6	7	8
지방정부 부채	35.1	40.7	37.8	38.9	40.7	41.7	42.6	42.6	42.8	-
일반부채	14.4	15.9	14.9	15.0	15.9	16.2	16.3	16.3	16.2	-
전용부채	20.7	24.9	22.9	23.9	24.9	25.5	26.4	26.4	26.6	-

주 : 1) 기말 잔액기준, 조위안